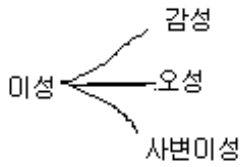
제7강 인식의 작동 원천과 과정

◆인식의 원천
(1교시)
※학습목표: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본다.

▲연역과 범주의 영역
-칸트의 연역은 선험적인 범주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. 즉 칸트의 연역은 수학이나 논리학의 연역이 아니다. 개념들의 상요권한, 개념들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다. 이는 결국 그 개념의 사용이 경험에 적용되느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것이다.
-칸트가 '개념의 분석론'에서 하려는 것은 오성의 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다. 그런데 오성의 틀은 경험에 직접작용하지 않고 선험적이다. 오성의 틀은 특정한 대상(영역)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, 모든 대상(영역)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근본적인 틀이다.

▲범주의 성격과 그 대상
「우리는 이미 아주 서로 대립된 두 종류의 개념을 가지고 있되, 그런 종류의 개념도 전혀 선천적으로 대상에 상관하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. 즉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개념과 오성의 개념으로서의 범주다. 이런 두 종류의 개념에 관해서 경험적인 연역을 시험해 보는 것은 전혀 헛된 것이다. 그런 개념들은 자신의 표상을 위해서 경험에서 빌려온 것이 없이, 자신의 대상에 상관하는 점에서 뚜렷한 특성이 있기에 말이다.」
-만약에 감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, 감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표상들과 관련을 맺을 때만 그 개념은 정당하다.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조차도 적용되지 경험(감성)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변이성이 되고 만다. 사변이성적 개념을 칸트는 이념들Idees이라 한다.

*참고사항



-칸트의 이념 vs 플라톤의 이데아: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상세계보다 더 진짜인 참된 실재다. 그러나 칸트가 본 이념은 인간이 현상세계를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믿는 허구적 개념이다.
-이념의 사변이성은 좋은 사용과 나쁜 사용이 있다. 무조건 거부의 대상은 아니다.

▲인식의 원천(조건)
「그러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포함하고, 그 자신은 심성의 딴 능력에서 끌어내질 수 없는 세 가지 근원적인 원천(마음의 소질 혹은 능력)이 있다. 감관, 구상력, 통각이 즉 그

www.artnstudy.com

것이다.」

-인식론은 감관, 구상력, 통각 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.

-감관: 대상을 지각한다. 감관이 지각해서 얻는 것이 표상(영국경험론: idea, impression, 데카르트: 본유관념)이다. 감각은 일차적으로 우리 삶을 규정한다. 그러나 표상들은 그 자체로는 잡다하다.

-구상력: 구상Einbildugskraft은 상을 세운다는 것이다. 상을 내 마음 속에서 조직하는 능력이다. 잡다한 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, 그것이 뭔가와 연결돼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인식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마디가 구상이다.

-통각: 그런데 종합작용은 나의 의식, 모든 생각들을 받아드리는 주체의식의 통일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. 때문에 통각은 데카르트의 사유cogito다.

▲인식의 순서

「**이 세 능력에 기본해서 1. 감관에 의해서 <u>선천적으로 다양을 개관하고</u>, 2. 이런 다양을 구상력에 의해서 종합하며, 3. 이 종합을 최후로 근원적 통각에 의해서 통일한다. 이 세 능력전부가 각각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이외에 선험적으로 사용된다. 선험적 사용은 전혀 형식에만 유관하고 선천적으로 가능하다. 감관에 관한 선험적 사용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제일부(감성론)에서 진술하였고, 이제야 우리는 구상력과 통각의 본성을 통찰하려고 한다.**」

-'선천적으로 개관한다'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감각하는 차원이 아니라, 시간과 공간이란 형식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. '감관의 형식'이라고 하면 옳겠다.

www.artnstudy.com

◆ 이식의 과정
(2교시)
※학습목표: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.

▲표상의 연결
「만일 하나의 표상이 다른 표상과 관계함이 없이 이를테면 고립해 있어서, 딴 표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면, 비교되고 연결된 표상들의 전체적인 바, 「인식」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.」
-만약에 표상이 정돈되지 않는다면, 비교되고 연결된 표상들의 전체로서의 인식은 안 된다. 바꾸어 말하면 인식은 잡다한 표상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, 그 표상들이 비교되고 연결된 전체가 되는 것이다.

▲개관과 종합
「즉 감관이 직관할 무렵에 그것은 다양성을 포함하기 때문에, 나는 그러한 감관에 개관작용을 부여한다. 이때의 개관작용에는 항상 종합작용이 대응한다. 수용성은 자발성과 결합해서만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런데 이 자발성은 모든 인식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겹의 종합의 기초이다.」
-개관작용: 감관을 받아드리는 것. 수용성
종합작용: 받아드려진 감관을 구성하는 것. 능동성(자발성)
-감관이 표상을 수용하고, 오성이 그것을 구성할 때에만 인식이 성립한다.

▲인식의 과정
「즉 직관에 있어서의 심성의 변양으로서의 표상들의 각지·*구상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재생*개념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재인의 기초다.」
-변양modification: 양태mode가 변하는 것
-각지: 표상들은 심성의 변양이다. 그래서 직관해서 표상들을 얻는 것은 심성의 변양을 얻게 되는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각지다.
-재생: 이 표상들을 구상해야 하는데, 즉 상(표상, 이미지)을 구축하는 것이다. 이 표상들을 종합하는 것이 구상에 있어서 재생이다.
-재인: 개념Begrif은 표상을 greifen잡는다는 것이다. 즉 종합들이 하나로 통일, 판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념의 재인(다시 인식하다)이다.

*참고사항
칸트식 이식의 순서 나열
「시공간의 틀로 대상을 각지→ 실제 본 대상과 머릿속 그 대상에 대한 오성의 틀 사이에 구상력이 종합을 함→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개념들 속에서 재인」

www.artnstudy.com